

## 재혼가족의 적응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sup>1)</sup>

장 혜 경 (연구위원)

민 가 영 (위촉 연구원)

### <목 차>

- I. 서 론
- II. 한국재혼가족의 일반적 현황과 재혼가족정책 현황
- III. 재혼가족 삶의 전반적 현황 : 설문조사 분석
- IV. 재혼가족의 갈등 및 적응 실태 : 심층면접 분석
- V. 재혼가족을 위한 정책과제

### I. 서 론

####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구동태통계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혼인건수는 1992년 이후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이혼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결혼에 대한 이혼비율은 1992년 11.4%에서 2000년 35.9%로 10년 사이에 24.5%포인트 이상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이혼의 증가는 재혼가족의 증가를 동반하는데 2000년 현재 결혼한 33만4천쌍 중 부부한쪽 또는 양쪽이 재혼인 경우는 13.1%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혼인형태별로는 남녀모두 재혼인 경우와 초혼남과 재혼녀의 혼인 형태가 꾸준한 증가추이를 보이면서 여성들의 재혼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재혼이라는 현상이 과부재가금지관행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한국 전통문화에서 사별한 남성이나 대를 잇기 위한 방편이었지만 재혼을 증가와 혼인형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성의 재혼대상범위의 확대는 '개인적 선택'으로서의 결혼의 가능성이 여성들에게도 일면 열려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혼의 증가가 재혼 및 이에 따른 복합가족(blended families, step families, mixed families)의 중대를 가져오는 반면 재이혼율이 보여주는 복합가족의 해체 또한 심각한 사회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초혼가정의 이혼율이 40%인데 비해 재혼가정의 이혼율은 70%, 세 번째 결혼일 경우엔 이혼율이 80~90%까지 올라간다는 통계보고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공식 통계는 없지만 초혼보다는 재혼의 이혼율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 가정법률상담소의 재혼부부의 갈등상황 통계를 볼 때 이혼문제가 높아 재혼가족의 새로운 가족에의 적응문제의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재혼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재이혼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구체적으로 보고되고 있지 않지만 그 추이를 볼 때 재혼가족의 삶을 보는데 있어서는 초혼가족과는 다른 접근이 요청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는 재혼이 초혼의 경우보다 가족관계, 친척, 사회적 관계에서 훨씬 더 복잡한 변수들이 작용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이 필요한 가정형성과정이며 문제의 영역에서도 상황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이다.<sup>1)</sup>

또한 특별히 우리 사회가 부모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성별화 되어 있다는 사실은 계부모 또한 성별화된 계부모 역할을 경험하는데 일반적으로 계모인 경우 계부보다 역할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부모로서의 역할기대가 크다는 점과 계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들 수 있다. 재혼가족 안의 남성과 여성이 재혼가족을 경험하는 방식의 차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말해주기도 하며, 특별히 재혼가족여성의 삶에 대한 관심이 강화될 필요가 있어 성인지 시각에서 재혼가족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이는 재혼한 여성의 지위 또는 삶이 가족법에 근거한 가족관이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재혼가족은 여성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는 재혼가족의 혼인형태별 규모를 파악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재혼가족들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해와 이들 가족이 안정되고 가족구성원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가족의 구

1) 계자녀의 교육방식, 여성친자녀의 성(姓)문제, 의료보험·부양가족혜택·세금공제대상제외, 여성이 양육권, 친권이 있음에도 전 남편이 동의가 필요한 문제 등.

조가 변화하면서 우리 사회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가족모습에 따른 가족안정화 정책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재혼가족 구성원들의 관계와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재혼가족이 당면하는 가족문제해결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 그리고 재혼가족의 가족기능의 강화와 가정해체를 예방하는 가족정책의 수립에 기여할수 있을 것이다.

## B.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본 연구는 재혼가족에 대한 연구로는 처음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적인 면접조사를 통해<sup>2)</sup> 재혼 가족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들 가족에게서 나타나는 가족의 문제를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어떠한 정책유구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들 가족의 안녕을 돕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또한 국내, 외 문헌과 자료를 분석하고 가정법률상담소, 청소년쉼터, 재혼정보회사등을 방문하여 기관사례를 조사하였다. 관련학자, 관계부처, 상담기관등의 전문가등을 초청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연구 진행 전반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다. 그리고 여성부 주최, 한국여성개발원 주관으로 가족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정책적 논의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혼가족의 전반적인 통계현황 및 혼인형태별 규모를 파악하였다. 총재혼비율, 재혼형태별 혼인구성비, 부부의 재혼형태별비율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나라 전체 혼인에서 재혼 및 재혼가족의 규모를 파악하였다.

둘째, 국내·외 재혼가족에 대한 정책, 관련법 및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의 경우는 호주제를 중심으로 재혼가족에 적용되는 법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상태임으로 이혼과 재혼이 많은 외국의 사례들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셋째, 재혼가족을 보는 이론적 시각을 정립하고 분석체계를 도출하였다. 재혼가족에 대한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재혼가족을 보는 시각, 재혼가족의 구성방식(초혼가족과는 다른 하위체계, 역할관계, 구성원의 감정구조 등)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분석모형을 이끌어 내었다.

넷째, 재혼을 하려는 사람들의 재혼 및 재혼가족에 대한 인식정도와 사회적 지원유구를 살펴보았다. 재혼 전에 이들의 재혼 및 재혼가족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재혼을 희망함

2) 재혼가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대부분이 노년기가족 혹은 노인대상으로 사별후 재혼과정에 대한 인식, 재혼 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고 실제로 이혼 후 재혼가족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김성천, 2000).

에 있어서 어떠한 의식과 사회적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자는 재혼 정보회사의 도움으로 회원등록한 재혼희망자를 설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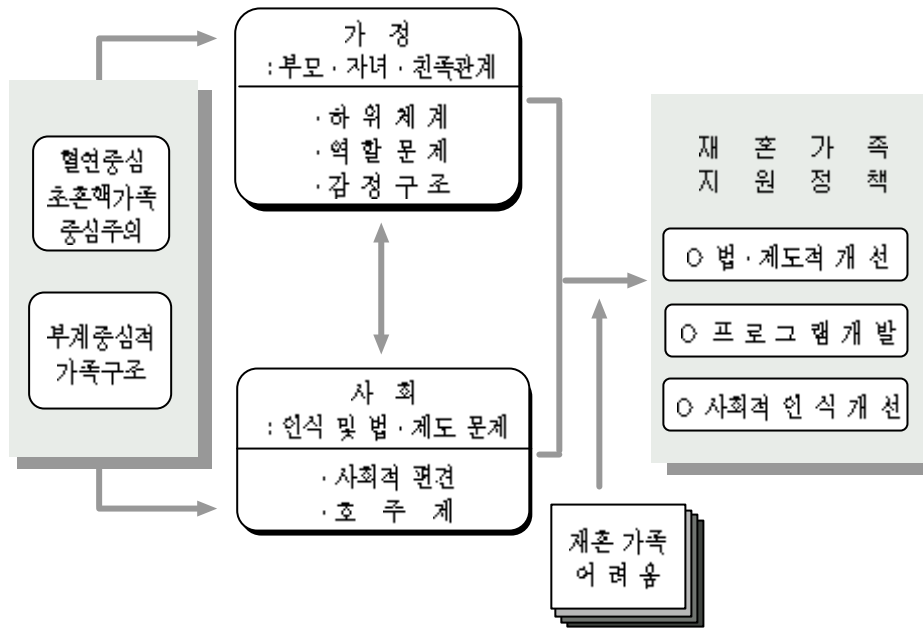
다섯째, 재혼한 남성과 여성대상으로 재혼가족으로서의 전반적인 가족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어려움과 구체적인 문제를 밝혀보았다. 설문조사를 통해 재혼가족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과 사회적 지원욕구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심층면접으로 구체적인 재혼가족의 문제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혼한 남성과 여성대상으로 가족특성, 전반적인 가족생활,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배우자의 친자녀, 본인의 친자녀, 따로 살고 있는 배우자의 친자녀와 본인의 친자녀, 재혼 후 출산한 자녀 등), 친족관계, 재혼 전의 준비와 계획, 재혼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및 관련정책 욕구 등을 살펴보았다.

여섯째, 조사결과와 본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내용들을 기초로 재혼가족의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원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정책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주요개념들을 재혼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의 배경, 가정과 사회에서의 현 당면 문제, 그리고 이의 해결을 돕는 정책방안으로 정리하였으며 구체적인 정책과제는 법제도적 개선 방향과 프로그램개발, 그리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차원에서 살펴보았다.

특별히 본 연구는 재혼가족의 생활실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재혼가족이라는 현실 속에서 어려운 점을 당면, 경험하고 있지만 슬기롭게 가족생활의 건강함을 유지하고 기존의 혈연가족의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 가족을 부각시킴으로써 재혼가족들이 고려해 볼 수 있는 모델사례들을 고려해 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의도하지 않게 재혼가족이 가족일반의 문제인 측면도 있고 재혼이 갖고 있는 어려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혼으로 인한 갈등만을 갖고 있는 가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위험을 극복해 보고자 하였다.

### C. 연구모형

본 연구는 위에서 살펴본 혈연중심 초혼 핵가족 중심주의와 부계중심적 가족구조라는 두 개의 커다란 틀에서 재혼가족의 생활과 가족구조를 살펴보려고 한다. 핵가족을 모델로 삼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기반 한 사회의 인식, 법, 가족제도가 구체적인 재혼가족생활에서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친족관계를 통해 어떻게 재혼가족의 적응, 부적응을 양산해 내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이들 가족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 모형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분석모형

## II. 한국재혼가족의 일반적 현황과 재혼가족정책 현황

### A. 재혼 및 재혼가족 현황

우리 나라 재혼 및 재혼가족 현황은 전체 인구 중 재혼가족의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혼인전수를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의 급격한 이혼율 증가는 완만하지만 재혼율의 증가를 동반하고 있다. 결혼에 대한 이혼율은 1995년 17.1%에서 2000년 35.9%로 5년동안 약 19% 포인트의 증가를 보여주었고 재혼율도 95년의 6.4%에서 99년에 13.1%로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다.

〈표 II-1〉 총이혼율/총재혼율(%)

단위 : 천명(%)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총 혼인수 (%)	398,484 (100)	434,911 (100)	388,591 (100)	375,616 (100)	362,673 (100)	334,030 (100)
총 이혼수 (%)	68,279 (17.1)	79,895 (18.4)	91,159 (23.5)	116,727 (31.1)	118,014 (32.5)	119,982 (35.9)
총 재혼수 (%)	39,838 (6.4)	44,400 (6.6)	41,347 (7.2)	43,401 (8.1)	46,455 (9.3)	43,617 (13.1)

주 : 총이혼율/총재혼율은 총이혼수/총재혼수×100÷총혼인수로 산정하였음.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해당년도

재혼율을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2〉). 특별히 눈에 띄는 변화는 여성의 재혼이 남성의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95년을 고비로 여성의 재혼율이 남성의 재혼율을 앞질렀다는 것이다.

〈표 II-2〉 성별 전체 혼인 중 재혼구성비(1990~2000년)

단위 : %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sup>1)</sup>
남자	8.4	8.1	8.5	8.9	9.2	10.0	10.2	10.6	11.6	12.8	13.1
여자	7.1	7.1	7.8	8.6	9.1	10.0	10.4	11.3	12.5	14.0	14.5

주 : 초혼에 비해 재혼의 경우 혼인신고 지연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 재혼구성비는 좀 더 높을 가능성이 큼.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해당년도

혼인형태별로 보면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가 82.5%(1999)로 가장 높으나 배우자 중 한 명이 재혼인 혼인형태가 꾸준한 증가의 추세에 있다. 재혼한 부부들의 혼인형태별 구성비를 보면 여자와 남자 모두 재혼인 경우의 비율이 9.3%(199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초혼남+재혼녀의 비율이 4.7%(1999년) 재혼남+초혼녀의 비율 3.5%(1999년)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3〉 혼인형태별 혼인구성비

혼인 형태	단위 : %				
	1995	1996	1997	1998	1999
초혼+초혼	86.4	85.9	85.3	84	82.5
재혼(남)+초혼(여)	3.6	3.6	3.4	3.5	3.5
초혼(남)+재혼(여)	3.6	3.8	4	4.4	4.7
재혼(남)+재혼(여)	6.5	6.6	7.3	8.1	9.3

자료 : 통계청, 「인구통계조사, 해당년도

따라서 여성의 재혼을 증가는 혼인형태에서 볼 때 여성의 재혼대상 범위가 확대된 데 기인하는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sup>3)</sup> 이는 여성의 재혼에 대해 더 부정적이던 사회적 관념의 약화를 의미하기도 하여(조옥라, 1996) 이혼 후 재혼하는 사람들의 증가를 통해 결혼/이혼/재혼에 대한 유연한 사고방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혼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편견이나 생활유지수단으로서의 결혼의 특성으로 인해 가정을 꾸리지 않고 사는 것의 어려움을 재혼증가 요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1997년 현재 한국의 전체 혼인가구 가운데 재혼가구 비율은 11%이다. 이혼 후 자녀양육권을 아버지가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혼가구중 많은 경우가 남자가 친부모로서 전혼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는 제모가족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정현숙 외, 2000), 재혼율의 증가, 특히 여성 재혼율의 증가는 이러한 재혼가족의 구성형태를 앞으로 더욱 다양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박민선, 1995)(김승권, 2000에서 재인용).

## B. 국내 재혼가족 정책 현황

### 1. 법·제도적 차원

호주제도는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개인의 신분변동사항을 등록하여 민법 관계를 규율하기

3) 혼인형태별 혼인구성비를 볼 때 1980년부터 1998년 사이 남녀 모두 초혼인 혼인의 비율이 줄어든 데 비해 남녀 모두 재혼인 경우와 남성초혼/여성재혼인 경우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남성재혼/여성초혼인 경우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1994년 기준으로 이전까지는 재혼남성/초혼여성의 혼인비율이 초혼남성/재혼여성의 비율보다 높았으나 1995년 부터는 역전되었기 때문이다.

위한 신분등록제도로 ‘민법 제 4편(친족법)’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는 호적법이 있다. 재혼가족과 관련하여서는 ‘이혼 후 자녀의 입적 및 부자동성주의’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겠다.

자녀의 호적은 출생이나 인지로 인하여 아버지 호적에 입적하도록 하고 다른 집으로 입양하거나 결혼하여 분가하지 않는 한, 아버지 호적에서 나와 다른 호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민법 제 781조 1항). 앞서 살펴본 대로 결혼에 대한 이혼율의 증가현상과 1999년을 기준으로 혼인한 10쌍의 부부 중 3쌍이 이혼하고 이혼한 사람 10명당 3명이 재혼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자녀의 입적문제와 부자동성주의의 유지는 변화하는 혼인행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 가. 이혼 후 자녀의 입적 문제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자녀의 입적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가족공동체가 이혼에 의해서 해소되는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양육자 및 친권자가 되어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데 그 당사자가 여성일 경우에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즉 부부가 이혼하여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하더라도 자녀는 아버지의 호적에 남아있게 되므로 함께 사는 엄마와의 관계는 ‘동거인’이 되어버리게 되고 이럴 경우 자녀의 호적을 엄마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아버지의 사망 이후라도 엄마와 자녀는 호적에 함께 기록 될 수 없다.

이혼 후 어머니가 양육자 및 친권자로 되어 자녀를 양육해 오다가 재혼한 경우 어머니는 재혼 후에도 전혼자녀와 함께 생활하지만, 재혼한 남편의 동의가 없으면 자녀와 같은 호적에 기재될 수 없는데 어머니는 재혼하면서 자동으로 남편의 가에 입적하지만 자녀는 그렇지 못하다. 또한 재혼한 남편이 입적에 동의해 준다고 해도, 곧 이들 여성의 자녀들이 현 남편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자녀들은 이혼 후에도 계속해서 부(즉 전남편)의 가에 속해 있으므로, 마음대로 그 가를 떠날 수가 없고 그 가의 주인인 부(전남편)의 동의가 있어야만, 자녀들은 그 가를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각각 다른 가의 주인인 현재의 남편과 전남편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실제의 동거여부와 무관하게 어머니와 자녀는 같은 호적에 기재될 수 없는 상황이다(즉 동일한 가에 속할 수 없다).

#### 나. 부자동성주의 문제

이혼한 여성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키우고 있다가 재혼할 경우 아이의 성 문제가 있다. 이는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고(제781조 제1항)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제781조, 제826조).

민법 제784조 “부의 혈족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에 관한 규정에 의해 부의 혈족 아닌



처의 직계비속(전혼중의 자 또는 혼인외의 자)이 부의 가에 입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의 동의가 필요한 반면 부의 혼인외의 출생자, 즉 처의 혈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부의 가에 입적하는 경우에는(남편이 외도하여 낳은 자식) 처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누가 '가'에 입적할 수 있는가는 그 가의 주인인 부가 정한다는 의미임으로 처는 부의 가에 속한 가족에 지나지 않으므로, 가의 주인인 부가 누구를 입적시키든지 관여할 권리가 없음이 내재하여 부부의 평등권 침해와 여성의 자녀들을 차별하고 있다.

## 2. 프로그램 차원

우리 나라에서 재혼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1998)가 개발한 재혼준비 교육프로그램 모형을 제외하고는 없다. 동 프로그램은 재혼가족을 형성할 계획을 가진 예비재혼 부부들이 재혼가족생활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며,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재혼가족생활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사전논의를 통해 상호이해와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성공적인 재혼생활을 위한 준비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소집단의 강의와 실습 및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기반이 가족이론의 주요전제와 재혼가족에 대한 여러 모델에서 강조된 내용, 그리고 매우 제한된 사례연구의 결과들을 토대로 구성함으로써 현재 재혼가족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삶의 역동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태도나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 습득 등).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후 아직 구체적인 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재혼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재혼단계,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 대상과 내용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혼가족의 양적 및 질적 실태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III. 재혼가족 삶의 전반적 현황 : 설문조사 분석

### A.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에 응답한 재혼남성의 평균연령은 48.7세(배우자 44.1세), 여성은 42.9세(배우자 47.4 세)였다. 연령대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남성 44.2%와 여성 46.2%가 모두 40대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 분포로 볼 때 특히 30~40대의 재혼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학력을 보면 남녀응답자 모두 고

등학교 졸업이 43.5%(남성 37.2%, 여성 47.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남성은 대학교 졸업자(25.6%), 여성은 전문대졸/대학중퇴(16.9%)가 많았다. 직업은 남성의 90.7%, 여성은 56.9%가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배우자의 경우 남성 48.8%, 여성 90.8%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재혼가족 여성들이 상당수가 일을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소득수준은 남성과 여성 모두 비슷한 빈도 분포를 나타내는데 전체적으로 중산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8.3%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순으로 하층이라고 생각한 경우가 3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하층을 포함한다면 본 연구대상으로서 재혼가족의 경제적 상태가 적지 않게 하층 범주에 놓여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B. 가족특성

응답자의 재혼형태는 전체적으로 부부 모두 이혼한 경우가 50.9%(남성 53.5%, 여성 49.2%)를 차지하였다. 이혼 혹은 사별 후 재혼하기까지의 기간에서 남성은 평균 약 3년 3개월이었으며 여성은 약 5년 7개월 정도로 나타났다. 현재 배우자를 만나서 6개월 안에 결혼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32%를 차지하고 있어 만나서 결혼하기까지의 기간이 매우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전체적으로 법률혼이 70.4%였으며, 사실혼이 21.3%임은 재혼가족에서 사실혼 관계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여성 배우자의 친자녀 문제,’ ‘확신이 안서서’ 등의 응답이 높았다. 그러나 기타의 범주가 적지 않아 현 조사 결과에서 제시된 이유 이외의 사유들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혼동기로는 전반적으로 볼 때 남성은 ‘외로움 극복,’ ‘상대방 사랑,’ ‘성생활 욕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상대방 사랑’ 다음으로 ‘집안의 (경제적) 도움 필요성’으로 나타나 여성의 재혼은 경제적 필요에 의한 현실적 문제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 C. 전반적인 가족생활

재혼가족의 생활 과정에 따른 단계별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각 단계별로 우선적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재혼결심단계에서는 재혼가족에 대한 긍정적 사회인식의 미비, 재혼준비단계에서는 경제적 문제, 재혼초기단계(재혼 후 5년)에서는 경제적 문제와 친자녀 성의 문제, 재혼생활에 대한 배우자의 이해부족, 계자녀와의 관계, 재혼중기단계에서는 경제적 문제와 가정내 본인의 역할, 배우자와의 관계등이 우선적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 D. 배우자와의 관계

의사소통방식, 의사결정방식, 성격 및 생활태도, 성생활, 그리고 남편배우자주도의 생활비 및 재산관리 면에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의 관계는 원만하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의사소통방식과 의사결정방식에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점을 눈 여겨 볼 수 있다.

## E. 자녀와의 관계

### 1. 함께 살고 있는 친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에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으로는 **남성친자녀**의 경우는 본인, 배우자, 시댁식구(남성의 친자녀)/친정식구(여성의 친자녀) 순이었으며 응답자 39명 중 15.4%가 재혼가족을 보는 교사의 편견을 경험하였다. ‘남성친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1순위로 자녀의 성격, 2순위로 양육방법 차이에 의한 갈등과 학부모역할, 그리고 3순위로 양육방법차이에 의한 갈등, 학부모 역할, 그리고 자녀의 성격으로 나타났다. **여성친자녀**의 경우는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자녀의 성격 순으로 어려움을 들었다. ‘재혼 후 배우자의 친자녀의 성격 변화여부’에 대해 39.1%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 측면에서 경험하였다. 응답자의 43명 중 58.1%가 본인이나 부인이 친자녀의 성에 대한 어려움을 느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약 70%로 높았는데 이는 여성이 실제로 제도적 불이익을 더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성별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자녀의 성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5.8%였다(여성은 65.5%). 바꾸는 방법은 24명의 응답자 중 ‘새아버지와 같은 성으로’가 83.3%, ‘자녀가 원하는 대로’가 16.7%였다. 친양자법에 대한 인지여부는 55.8%가 모르고 있었다. 재혼여성의 친자녀양육비 담당자는 현 배우자가 32.6%, 본인이 30.2%로 여성의 경제력과 무관하지 않음을 나타냈다.

### 2. 따로 살고 있는 친자녀가 있는 경우

응답자의 23명(남성 11명, 여성 12명)이 따로 살고 있는 남성배우자의 친자녀가 있었으며 남성배우자의 친자녀 양육자는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69.6%가 친모가 양육을 담당하고 있었고 친모와 함께 살수 없는 경우에 독립해서 살고 있었으며 반수이상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여성배우자의 친자녀 양육자는 전반적으로 친부이면서도 다양하였다. 남성배우자가 따로 사는 친자녀와의 만남은 남성은 11명의 응답자 중 63.6%, 여성은 23명의 응답자 중 65.2%가 '예'라고 하였다. 남성배우자의 친자녀와의 만남 정도에 대해 남성의 71.4%, 여성의 66.7%가 '만나고 싶을 때마다'로 응답하여 비정기적인 만남을 나타냈다. 따로 사는 친자녀를 만나지 않는 경우 전반적으로 '친모가 싫어해서'가 컸으며 남성과 여성응답자 모두 자신들이 싫다고 하였다. 여성배우자의 친자녀와의 만남에 대해 남성 54.5%, 여성 50.0%가 만난다고 하였다. 만남 정도에 대해서 남성의 33.3%가 부인이 '만나고 싶을 때마다'라고 응답했으며, 여성은 63.6%가 '만나고 싶을 때마다' 만난다고 하여 재혼한 여성들이 따로 사는 친자녀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은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임을 나타냈다.

### 3. 재혼 후 출산한 자녀

재혼 후 피임이나 단산수술을 받은 경험과 그 이유에 대해 17명의 응답자중 남성 5명중에 1명(20%), 여성 12명중 5명(41.7%)이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여성의 경우 그 이유로 '친자녀와의 사이가 멀어질까봐'가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 현 배우자와 재혼하여 얻은 새 자녀가 있는 응답자 11명에게 새 자녀 출산전후를 비교해 여성들은 변화의 폭이 어느 정도 엇보였는데 특별히 남편과의 관계와 기존자녀들과의 관계 면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가 있음을 나타냈다.

### F. 친족관계

재혼 후 시댁 혹은 친정식구와는 전반적으로 75.9%가 원만하였으며 전혼과의 차이는 31.5%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면을 말하였다. 전혼과의 차이로는 전혼보다 어려워 매사 조심하게 된다는 것, 전혼보다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들었다.

### G. 재혼전의 준비와 계획

재혼 전에 함께 상의한 내용들은 여성의 경우 자녀의 양육여부와 방법, 자신의 역할문제, 재혼가족으로서의 생활규칙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자녀의 양육여부와 방법, 재혼가족으로서의 생활규칙과 가정경제권의 문제, 그리고 자신의 역할문제 등을 들었다. '재혼 전 재혼준

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은 남녀모두 84.3%가 없었으며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는 교육에 대한 정보가 없었음이 41.8%로 제일 높게 나타나 홍보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재혼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사'는 여성 50.8%, 남성 27.9%로 여성들의 욕구가 남성에 비해 높았다. '전문프로그램의 세부내용'으로는 자녀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및 역할, 의사소통기술, 자녀의 발달과정에 따른 교육 및 지원, 부모/학부모 역할, 친족관계 역할, 가정생활적응방법, 본인의 심리정서적 안녕 증진방법, 가족원의 결속 및 적응력 증진방법, 재산관련이용방법, 상담기관이용방법,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제공, 법적인 부분에 대해 필요하다고 하였다. '프로그램의 개입시기'는 재혼 전 52.3%, 재혼초 32.2%,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15.4%로 나타나 재혼전 준비에 대한 높은 욕구를 나타냈다. '재혼가족에 관련된 용어'들에서 응답자의 55.6%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응답해 현재 재혼관련 사회적 용어가 재혼가족들의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H. 재혼가족 사회적 지원 체계 및 관련 정책

희망하는 정책적 기대에서 전반적인 호주제도 및 문화개선, 재혼가족과 관련한 법 제정, 재혼가족관련업무 담당부서의 설치, 현재의 남편 성 따르는 것, 공문서 양식개선, 자녀와 관련한 사회보험제도 확립, 경제적 지원, 친/새부모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지침서 발간, 재혼가족 긍정적 인식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강화, 재혼가족 전문 상담가 등의 필요성은 60%에서 80% 이상의 분포를 나타냈다.

### IV. 재혼가족의 갈등 및 적응 실태 : 심층면접 분석

#### A.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특성

응답자의 연령대는 20대 1명, 30대 3명, 40대가 6명, 그리고 50대가 3명이며 1명이 자신의 나이를 밝히지 않았다. 9명의 여성 중 6명이 일을 하고 있었으며(재혼 후 다시 이혼한 여성 2명 포함) 남성의 경우 모두 직업을 갖고 있었고 재이혼한 1명을 제외한 4명 모두 배우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한달 평균수입은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이다. 재혼유형으로는 사별+사별 1사례, 이혼+이혼 4사례, 이혼+사별 5사례, 초혼+이혼 2사례, 초혼+사별 3사례이다. 이 중 초혼은 모두 여성에

해당해 초혼이 한 명도 없는 남성과 대조를 이루었다. 면접대상자들이 재혼을 하게 된 경로는 주위 아는 사람들의 소개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재혼정보회사를 거친 경우가 많았다. 혼인상태를 보면 대부분 법률혼에 해당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도 두 사례가 있다. 한 가족은 혼인신고를 할 경우 현재 지급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수당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서 계속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나머지 한 가족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자신의 친자녀들과 동거인 관계로 변하는 것이 싫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가족형태는 본인자녀+배우자자녀+재혼 후 새로 낳은 자녀와 모두 함께 사는 경우가 2사례, 본인자녀+배우자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1사례로 양쪽의 전혼자녀와 모두 함께 사는 경우가 총 3사례였다. 여성의 전혼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1사례, 남성의 전혼자녀만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5사례이다. 성별로 봤을 때 여성의 경우 본인의 전혼 자녀가 있고 전혼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는 5사례, 남성의 경우는 10사례로 남녀간에 다소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아이가 있는 여성의 경우 남편이나 친정에 맡기고 재혼하는 경우가 남성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14-1〉 심층면접자의 일반적 배경

재혼한 사람								
사례	재혼기간	재혼까지 기간		만남 경로	교제기간	동거자녀	혼인상태	동거여부
		본인	배우자					
1	10년	1년6개월	1년	친구소개	5개월	본인딸(11,12) 남편딸(15) 새로운자녀(아들, 6)	법률혼	동거
2				재혼정보회사		-	사실혼	없음
3	11년	초혼		직장동료소개	5개월	남편딸(23,21)	법률혼	없음
4	3년10개월	초혼	5년	회사일로 알게됨	5년	남편아들(11)	법률혼	없음
5	4개월	4년8개월	2년5개월	아는 언니소개		본인딸(8,6)	사실혼	동거중
6		1년9개월		교회사람 소개		본인딸 남편아들, 딸 새로운 자녀	법률혼	동거
7	18년	2년	2년	아는 사람소개	1개월	새로 낳은 아들	법률혼	없음
8	3년			일로 만남	1년	남편아들(14), 딸(12)	법률혼	동거
9	10년	8년	6년	아는 사람소개	2년	본인딸(대학생) 부인아들(전문대생)	법률혼	없음
10	11년	1년		현 장모의 소개		본인아들(25), 딸(20)	법률혼	동거
11	1년	3개월	4년	재혼정보회사		-	법률혼	없음
12	1년	초혼	1년5개월	재혼정보회사		본인아들(16,13) 부인 임신중	법률혼	없음

재이혼한 사람								
13	10년	5년	6개월	아는사람 소개		남편아들 둘	법률혼	없음
14	16년	3년		아는사람 소개	1개월	본인딸 남편 딸2, 아들	법률혼	동거
15	5개월	7개월		아는사람 소개	5개월	본인 딸, 아들	법률혼	없음

## B. 재혼가족의 갈등실태

### 1. 부부관계

재혼이라는 특수한 결혼의 조건은 부부관계에 있어 전혼 배우자, 제자녀-제부모의 관계, 부부간의 의사소통이라는 지점에서 갈등을 나타내는데 그 유형들은 이전 가족과 새로운 가족 사이에 유연한 가족경계 확립이 어려워 이전 배우자와 만남을 지속하는 경우, 비혈연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역할 모델의 부재로 본인친자녀에 배우자의 편애와 제자녀와 본인간의 관계 형성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다.

#### ○ 전혼배우자요인으로 인한 갈등사례

한 번 전화가 왔는데..인제 그 부인이 먼저 제 남편 핸드폰을 통해서 받았는데.. 술이 만취된 목소리로 정인이 아파냐고 그러드라구요. 그래서 아니 누구시냐고 애길 해보라고 나 정인이 엄마라고 그러니깐. 그때서부터 나는 정인이 생모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좋게 하드라구요. 그러면서 한 번 만나세요. 만나서 얘기를 하자는 거를 내가 단호하게..나 당신을 만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나 만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지금 무슨 저의로 이런 전화를 해서 나를 만나자고 하는거나 나는 싫다. 멘정신에 얘기를 하자. 그랬더니 술이 취한 상태에서 막 욕을 하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때 남편하고 싸움이 붙은거죠. 언제부터 이렇게 만난거나. 자기네들은 이렇게 들길 줄 몰랐던거죠. 그러면서 당신이 알면 기분 나쁠까봐 속인거 뿐이다. 자기네들은 단순히 그렇게 애길 하지만 모든걸 다 오픈하고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나두 자식을 두고 온 사람인데..이해를 했을 텐데(사례 7).

전혼 배우자 요인에 따른 갈등유형
(1) 아직 혼자인 이전 배우자가 현재의 재혼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2) 현재 배우자를 속이고 이전 배우자를 계속 만나는 경우 (3) 사별한 이전 배우자의 제사를 지내주는 것을 둘러싼 경우 (4) 이전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이 현재 생활의 평가기준이 되는 경우

#### ○ 자녀요인으로 인한 부부갈등 사례

이혼 생각 해봤죠. 사실 저희는 초반에 아이(남편 전혼자녀)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크게 한번 싸운 적이 있는데 제가 불만이 많아서 어머님한테 애를 보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번만 더 그런 얘기하면 집을 나가버리겠다고요. 그런데 제가 그만 뒀어야 되는데 화가 많이 나서 저도 심하게 더 애길 한거예요. 안 좋은 애길 많이 했죠. 그랬더니 나가더라구요. 남편이 나간 후에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전에도 다른 일은 몰라도 애에 대해서 어머님에게 보내자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말자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고 또 애가 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 그랬죠. 다신 안 그런다고 얘기 했어요(사례 4).

자녀요인에 따른 갈등유형
(1) 실제적인 본인자녀에 대한 편애 (2) 계자녀 양육 거부 (3) 계부모로서의 배우자에 대한 본인의 선입견 (4) 재혼생활에서 자신의 불안정한 위치의 방해자로서의 계자녀

#### ○ 역할부재로 인한 갈등사례

또한 재혼에 대한 사회적 선입견이 재혼 당사자들에게도 내면화 되어 배우자에 대한 편견, 본인 스스로에 대한 콤플렉스를 형성하게 해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특수한 조건이 되는 경우 등이 있다.



## 2. 자녀관계

비혈연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는 재혼가족 내에서는 본인자녀, 계자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공통된 갈등유형이 발생되었다. 이들은 외부에서 재혼가족 자녀에 대한 주위의 편견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고, 가부장적 호주제로 인해 자녀의 성씨 변경의 문제로 큰 정신적, 실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간의 성적(sexual) 위협의 가능성은 잠재적 갈등 사유가 되고 있다.

### ○ 주위의 편견으로 인한 갈등사례

(학교 선생님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던 것 같은데, 학교나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해줄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안 건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 우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가정기록부를 너무 드러내 놓고 조심성 없이 다루니까, 애한테도 상처가 될 수도 솔직히, 너무 못 마땅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애한테 잘되자고 하는 거고, 필요한 거니까 솔직히 작성해서 주지만 하지만, 그거는 학부형과 서로 이해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게 유출되고 밖으로 얘기되는 자체가 잘못된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 생각없는 행동하나가 애한테는 평생갈 수도 있는거고, 당사자 한테는 작은 일이 아니거든. 꼭 어떻게 해 줘서가 아니라 건들지나 않았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사례 8).

### ○ 제도적 문제로 인한 갈등사례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호적문제를 해결을 해 줘야죠., 국회에 올 연말까지 통과를 시킨다든지 하긴 하는데 당해보지 않으면 모를꺼야 그 사람들은, 국회에 나가 있는 사람이 거진 다 남잔데 모. 쉽겠어요? (아이 성씨 문제 때문에 아이들 친구들이 혼란스러워 하나요?) 가끔가다가 애들이 아파 이름하고 제 이름하고 쓰면 틀리잖아요. 그럼 넌 왜 아파 성이 이러니 그런 걸 언뜻 들은 것 같아요. 참 그렇더라고요. 말을 해줄 수도 없고, 원래 아파는 그렇게 됐고 새로 들어온 아파다 라고 하긴 했는데 그걸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왜 성이 틀려야 되는지, 전혀 말도 할 수 없고, 빨리 바뀌든가 아니면 아예 좀 더 커서 이렇다 얘기를 해줘야 할지 참 그래요. 내년엔 2학년이 되는데 좀 머리 컸으니까 고려를 해야죠(사례 5).

○ 계부모로서의 역할갈등, 본인 친자녀와 계자녀간의 갈등, 계자녀가 비동거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한 갈등유형

애가 어려서는 안 그러더니 자기 친엄마를 딱 만나고 나서부터는 친엄마를 나와 비교를 하더라고요. 개도 나를 엄마라고 인정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난 내 아버지랑 사는 여자 정도로. 그니까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고 호칭도 그냥 이 여자, 여자 라고 호칭을 해요. 아파 그 여자 뭐 어쩌구 그러지, 엄마라고 안해요(사례 7).

○ 재혼 후 새로 출산한 자녀로 인한 갈등유형 : 가족의 조건에 따라서 가족간 갈등 증폭의 계기가 되거나 가족간 화합과 친밀감 형성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가족적 의미	(1) 가족간 갈등증폭의 계기	(2) 가족간 화합과 친밀감형성의 계기
내 용	- 배우자자녀 방치 시댁식구우려 - 배우자 자녀의 거부감	- 시어머니께 며느리로서 인정받는 계기 - 배우자자녀들과 친밀감 형성 계기
출산당시 자녀 상황	본인자녀 혹은 배우자 자녀	본인자녀+배우자 자녀

### 3. 친족관계

혈연과 친족 중심적인 한국 가족문화에서 친족은 재혼가족이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집단이 되고 있다. 재혼 후 배우자의 친족들이 계자녀와의 관계 형성에 걸림돌이 되거나, 이전 배우자와 비교를 하는 것,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수용을 거부하는 친족들의 태도는 새로운 가족형성에 적응을 어렵게 해 재혼가족의 갈등 요인이 된다.

### 4. 재혼전의 준비와 계획

재혼가족은 가족원간의 서로 다른 배경, 삶의 방식, 전혼 경험들을 배려해주면서 원활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준비과정을 요한다. 그러나 면접 대상자들중 9 사례는 재혼 전에 특별한 준비나 계획을 하지 않았고 그들은 재혼생활을 어느 정도 한 지금 재혼전의 준비와 계획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들은 재혼생활이 초혼과는 다른 가족구조, 다른 가족 경계, 다른 가족 역할모델이

필요한 또 하나의 가족체계임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별다른 재혼의 준비 없이 재혼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C. 재혼가족 생활의 적응 요인

본 연구중 일부 사례에서 언급된 적응 요인들을 제시함으로써 재혼가족들이 고려해 볼 수 있는 모델 사례들의 일환이 되고자 한다.

#### 1. 부부관계

부부간의 분명하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것은 원활한 재혼생활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례 1>은 재혼 전에 남편 될 사람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재혼에 대한 마음의 준비 기간을 거친다. 그리고 재혼생활 중에도 지속적인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고 있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구체적인 가족간의 규칙, 역할 정하기까지 발전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재혼을 통해 각자 생활에 초래될 변화를 미리 예상해 보고 새로운 가족 생활을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 2. 자녀와의 관계

비혈연 관계로 이어진 계자녀와 계부모 사이를 원활하게 만들 수 있기 위해 사례들에서 보여준 방안으로 친부모 역할의 환상과 강박중에서 벗어나는 것, 부모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면서 자녀와의 관계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부모역할을 담당하는 것, 계자녀 친부모가 계부모 사이에서 둘 관계를 적극적으로 매개해 주는 것, 계부모에게 쏟아지는 사회적 편견을 스스로 극복하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

가족상황에 맞는 계부모역할 정의: 긍정적 자녀관계 맺기 위한 방안
(1) 친부모 역할의 환상과 강박중에서 벗어나기 (2) 부모의 성역할 고정관념 깨기 (3) 배우자의 적극적 매개 역할 (4) 계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극복하기

### 3. 친족관계

배우자의 친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면접사례들은 친족집단이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지지집단의 역할을 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초혼으로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여성 재혼자의 경우 시댁식구들의 지지와 도움은 계자녀와의 관계 적응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드러난다.

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처가집에서 인정을 받아야 했던 생각을 했어요, 첫번째는, 처가집에서 인정을 받음으로써 이 사람이 그 지금까지 쉽게 말하면 기가 죽어서 친척들을 만났는데, 내가 결혼생활을 잘하는 첫번째의 목적은 이 사람의 자리를 높여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처가집의 일이라면 내가 발벗고 나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가집에서도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그러면 이 사람이 자연적으로 나를 선택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을 할꺼다 그러면 결혼생활이 순탄하게 갈꺼다(사례 9).

### 4. 재혼전의 준비와 계획

재혼 전에 새로운 가족 형성을 위한 준비와 계획으로 여러 가지 규칙을 논의하는 것은 성공적인 재혼가족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다. 면접 대상자들은 주로 경제권의 문제, 새로운 자녀와의 관계, 새로 출산할 자녀 등에 관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 과정이 실제 생활에서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 D. 사회적 지원체계 및 정책관련 욕구

재혼가족들이 원하고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와 정책은 자녀성 변경의 문제, 호주제 폐지, 재혼가족 관련 교육 프로그램, 상담지원, 지침서와 안내책자 발간, 재혼가족들간의 자조모임 형성지원,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문제의 해결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담, 교육 관련된 내용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것으로는 부부관계 의사소통, 자녀관계 적응훈련, 스트레스 해소법, 상대방에 대한 이해, 인정, 존중훈련 등이다.

호주제가 가장 큰 문제죠.....빨리 폐지돼야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행동하시거나 그런 거는?) 그런 건 없지. 단지 누군가 나서서 해결을 해줬으면. (인터넷에서

찾아보신 적은?) 없어요.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호적문제를 해결을 해 줘야죠, 국회에 올 연말까지 통과를 시킨다든지 하긴 하는데 당해보지 않으면 모를꺼야 그 사람들은, 국회에 나가 있는 사람이 거진 다 남잔데 모. 쉽겠어요? (아이 성씨 문제 때문에 아이들 친구들이 혼란스러워 하나요?) 가끔가다가 애들이 아파 이름하고 제 이름하고 쓰면 틀리잖아요. 그럼 넌 왜 아파 성이 이러니 그런 걸 언뜻들은 것 같아요. 참 그렇더라구요.(주민등록상에 호주 이름이 기재가 되죠?) 호주는 딸로 되어 있어요. 애들 의료보험은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내 앞으로 다 되어있죠(사례 5).

사회적 지원체계 및 정책관련 욕구의 내용
(1) 자녀 성(姓) 변경의 문제, 호주제도의 폐지 (2) 전문가의 도움: 안내책자, 지침서, 상담지원, 교육 프로그램 (3) 재혼가족들간의 자조 모임형성 지원 (4)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문제의 해결

## V. 재혼가족을 위한 정책과제

### A. 법 제도적 차원

#### 과제 1. 가부장적 호주제 폐지

여성의 전혼자녀와 함께 사는 재혼가정에서 직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자녀의 성(姓)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의 호주제도 하에서 새아버지와 함께 사는 자녀들은 이전 아버지의 성을 그대로 써야 하므로 당사자는 학교나 일상 생활을 하는데 있어 늘 재혼가정의 자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 실정에 있다. 급증하고 있는 재혼가족의 추세에 비추어 봤을 때 가부장적인 호주제의 문제는 단지 ‘소수 재혼가족’의 문제가 아닌 전체 사회가 풀어내야 할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적극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 과제 2. 재혼가족을 위한 전문상담시스템 구축 : 온라인 상담 서비스 등

본 조사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많은 재혼가족 당사자들은 자신의 재혼사실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 공개적인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재혼자들의 수기와 전문가의 상담이 실린 안내책자나 자신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상의 상담을 원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재혼 당사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개입방안으로서 안내책자와 익명적 상담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방안 또한 공식적 프로그램과 더불어 필요할 것이다.

## 과제 3. 여성한부모와 재혼여성의 경제활동 지원방안 수립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의 시스템으로 인해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혼에 따르는 여성들의 경제적 빈곤화는 이혼이나 재혼한 적지 않은 여성들로 하여금 재혼을 생계유지방편의 하나로서 선택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맥락의 재혼은 부부간의 권력관계에 현저한 불균형을 야기해 재혼가족 구성원들간의 적응에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재혼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해 자신의 경제적 기반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과제 4. 재혼가족에 대한 정확한 통계확보

재혼가족에 대한 법,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현재 재혼가족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다. 적극적인 법, 정책적 제언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가족 형태에 대한 통계가 근거로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거자녀 상황, 동거자녀의 호적 상황, 자녀의 의료보험 상황 등이 통계적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B. 프로그램 개발 차원

## 과제 5. 재혼가족의 가족 내적 안정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재혼가족 구성원들이 새로운 가족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이 인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라는 가족마인드가 없는 데에서 찾아질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문

제가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가족에 대해 갖고 있는 마인드이다. 가족은 언제나 그 자체로 주어지는 것이고 가족 내에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자신이 맺는 관계, 위치, 역할도 그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지 '노력으로 획득'해야하는 대상이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가정폭력,' 이혼 등 극단적인 위기로 번지기 이전에는 상담, 교육, 가족내부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가족마인드는 재혼 전에 되어야 할 새로운 가족 구성원들간의 가족 만들기를 위한 준비, 문제가 생길 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자기개방, 감정이입, 상호이해라는 과정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의 준비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재혼생활을 경험한 당사자들은 재혼전의 준비, 사전 교육, 재혼생활 중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은 구성원들간의 노력과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관점 하에서 재혼가족의 구체적 현실에 기반 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요프로그램은 재혼가족의 가족경제모호성 해결, 재혼가정의 가족원 역할변화에의 적응, 재혼가정에 대한 지지집단으로서의 친족관계 맺기 등과 이러한 각종교육프로그램의 홍보활성화를 위한 안내책자 발간 등이 필요하다.

### C. 사회적 인식을 위한 홍보 차원

#### 과제 B.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교양 캠페인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정상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재혼가족은 재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비행의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라는 주위의 선입견을 받게 된다. 이는 단 하나의 가족형태만을 정상적인 가족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에 기인한다. 사회적으로 다양한 가족형태가 존재하고 그것은 '정상가족'이 되지 못한, 혹은 '정상가족'과 같아져야 하는 일탈된 가족형태가 아닌 있는 그대로 인정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수용을 끌어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들에 대한 교육과정 안에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교양 부분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과제 7. 교육과 공적 정책개입이 필요한 영역으로서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캠페인

일반적으로 가족에 관련된 사항은 교육의 대상이 아닌 철저한 사적 영역이라고 인식된다. 그

러나 필요에 따라서 가족은 외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가족원들의 태도와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회적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김성천(2000), 「가족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대안연구」, 보건복지부
- 김승권외(2000), 「한국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화순외(2001), 「한국가족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 및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신수진(1998), 「한국의 가족주의 전통」,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3권 1호.
- 신용하외(1996), 「한국 가족의 이념과 구조」, 「21세기 한국의 가족과 공동체 문화」, 지식산업사.
- 윤인진(1999),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한국사회학」, 33 : 511~49.
- 이동원외(2001),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양서원.
- 임춘희(1997), 「초혼제도의 재혼 가족생활 스트레스와 적응에 대한 경험적 연구」, 「가족학회지」, 한국가족상담연구소.
- 전춘애외(1998), 「또 하나의 우리, 재혼가족」,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개소 5주년 기념학술대회,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 정현숙외(1998), 「재혼가족에 대한 실태 및 재혼생활의 결에 대한 연구」, 「가족학회지」, 제38권 4호.
- 조옥라(1996), 「재혼, 그 또 다른 시작」,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40주년기념 심포지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조혜정(1986),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 최경석외(2001), 「재혼과 가족복지」, 인간과 복지.
- 통계청, 「인구통계통계년보」 각년도.
- 통계청(2001), 「인구주택총조사」.
- 한국여성개발원(2001), 「여성과 가족정책 세미나 자료집」.
- 국민일보 2001년 10월 20일자, 「남녀차별의 극치 호주제-폐해 너무 크다」
- 경향신문 2000년 2월 12일자
- 경향신문 2000년 9월 25일자, 「호주제 폐지 운동」
- 대한매일 2001년 4월 16일자, 「호주제로 고통받는 가족들」
- 대한매일 2001년 5월 25일자, 「가족관련법 손질할 때」
- 대한매일 2001년 7월 31일자, 「재혼녀 자녀 姓 때문에 고통」



세계일보 2001년 7월 5일자, “재혼가정 자녀문제”

조선일보 2001년 7월 3일자, “중년이후 이혼 급증/10년새 2배로”

중앙일보 1999년 10월 19일자, “기획취재, 고통받는 재혼가정”

중앙일보 2001년 5월 21일자, “姓 다른 내 두 아이 상처 감싸준다면 감옥에라도 가겠다”

중앙일보 2001년 5월 22일자, “친양자법 새롭게 검토해야”

#### 디지털 조선일보

[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107/200107030235.html](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107/200107030235.html)

[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107/200107030300.html](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107/200107030300.html)

[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107/200107040339.html](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107/200107040339.html)

[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107/200107040397.html](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107/200107040397.html)

[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107/200107040411.html](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107/200107040411.html)

Ahrons, Constance R. & Rodger, Roy H(1994), “The Remarriage Transition,” in Skolnick, Arlen S. & Skolnick, Jeron H(eds), *Family Transition*, Hapercollins College Publication.

Arendell, Terry(1994), “Mothers and Divorce : Downward Mobility,” in Skolnick, Arlen S. & Skolnick, Jeron H(eds), *Family Transition*, Hapercollins College Publication.

Austin, James F.(1993), “The Impact of School Policies on Noncustodial parents,”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Vol 20(3/4).

Bogenschneider, Karen(2000), “Has Family Policy Come of Age? : A Decade Review of the State of U.S. Family Policy in the 199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Boss, Pauline(1988), *Family Stress Management*, Newbury Park : Sage Publications.

Burgess, E.W.(1947), *Theory Construction and the Sociology of the Family*, London : John Wiley & Sons.

Crosbie-Burnett, Margaret(1989), “An Application of Family Stress Theory on Remarriage : A Model for Assessing and Helping Stepfamilies,” *Family Relations* 38 : 323-331

De'Ath, Erica(1997), “Stepparents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a Stepfamily Organization,” in Paseley, Kay & Ihinger-Tallman, Marilyn(eds), *Stepfamilies : History, Research and Policy* : New York : The Howorth Press Inc.

Dudley, James R.(1994), “Fathers Who Have Infrequent Contact with Their Children,” in

- Skolnick, Arlen S. & Skolnick, Jeron H(eds), *Family Transition*, Hapercollins College Publication.
- Fine, Mark A.(1997), "Stepfamilies from a Policy Perspective : Guidance from the Empirical Literature," in Paseley, Kay & Ihinger-Tallman, Marilyn(eds), *Stepfamilies : History, Research and Policy* : New York : The Howorth Press Inc.
- Fox, Greer Liton(2000), "Gender and Familes : Feminist Perspectives and Family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 Ganong, Lawrence H. & Coleman, Marilyn(1997), "How Society Views Stepfamilies," in Paseley, Kay & Ihinger-Tallman, Marilyn(eds), *Stepfamilies : History, Research and Policy* : New York : The Howorth Press Inc.
- Haberstroh, Chris, Bert, Hayslip Jr & Pius, Essandoh(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Stepdaughters' Self-esteem and Perceived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Vol 29(3/4)
- Hughes, Robert Jr & Schroeder, Jennifer D(1997),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s for Stepfamilies," in Kay, Paseley & Marilyn, Ihinger-Tallman (eds), *Stepfamilies : History, Research and Policy*, New York : The Howorth Press Inc.
- Ihinger-Tallman, Marilyn and Pasely, Kay(1987), "How Partners Adjust?," in *Remarriage*, Sage Publication.
- Ihinger-Tallman, Marilyn(1987), "Siblings and Stepsibling Bonding in Stepfamilies," in *Divorce & Remarriage*.
- Kelley, Patricia(1995), *Developing Health Stepfamilies : Twenty Familes Tell their Stories*, The Haringtonpark Press.
- Levin, Irene(1997), "The Stepparent Role from a Gender Perspective," in Kay, Paseley & Marilyn, Ihinger-Tallman(eds), *Stepfamilies : History, Research and Policy*, New York : The Howorth Press Inc.
- Mahoney, Magaret M(1997), "Stepfamilies from a Legal Perspective," in Kay, Paseley & Marilyn, Ihinger-Tallman(eds), *Stepfamilies : History, Research and Policy*, New York : The Howorth Press Inc.
- Masheter, Carol(1998), "Friendships Between Former Spouses : Lessons in Kay, Paseley & Marilyn, Ihinger-Tallman(eds), *Stepfamilies : History, Research and Policy*, New York :

The Howorth Press Inc.

- Nielsen, Linda(1999), "Stepmothers : Why So Much Stress : A Review of the Research,"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Vol 30(1/2).
- Paseley, Kay(1987), "Family Boundary Ambiguity : Perceptions of Adult Stepfamily Members," in *Remarriage-Stepparenting*.
- Ramsey, Sarah H.(1994), "Stepparents and the Law : A Nebulous Status and a Nneed Reform," in Kay, Paseley & Marilyn, Thinger-Tallman(eds), "Doing Case-Study Research",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Vol 28(3/4).
- Rubin, Rodger H(1988), "Public Policies and Variet Family Forms," in Chilman Catherine S. & Nunnally, Elam W. & Cox, Fred M(eds.), *Variet Family Forms, Families in Trouble Series 5* : Sage Publication.
- Orchard, Ann. L. & Solberg, Kenneth B(1999), "Expectations of the Stepmothers's Role,"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Vol 31(1/2).
- Stanfield, J.B(1996), *Married with Careers : Coping with Role Strain*, V.M. : Ashgate Publishing Company.
- Visher, Emily B. & Visher, John S(1988), "Treating Families with Problems Associated with Remarriage and Step Relationships," in Chilman, Catherine S & Nunnally, Elam W & Cox, Fred M(eds.) *Variet Family Forms, Families in Trouble Series 5* : Sage Publication.
- Weitzman, Lenore J. & Dixon, Ruth B(1994), "The Transformation of Legal Marriage Through No-Fault Divorce," in Skolnick, Arlen S. & Skolnick, Jeron h.(eds), *Family Transition*, Hapercollins College Publication.